

# 우리 밖의 만족 : 우리 안의 눈물



## 슬픈 동물원

<1>이상행동 보이는 동물

지난 2010년 12월 6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살던 말레이곰 '꼬마'가 우리를 탈출했다. 말레이곰 '꼬마'는 탈출한 지 9일 만에 붙잡힌 뒤 다시 동물원에 갇혔다. 사람들은 안도했고 박수를 쳤다. 정작 꼬마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짧지만 강렬했던 9일 간의 자유를 그는 잊을 수 있을까. 죽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철창 안에서 매일같이 지루한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그의 여생은 어떨까.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인간에게 순간의 '관람'이지만 동물에게 평생의 '감금'이다. 과연 동물원은 동물들에게 행복한 공간일까. 각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시설물은 동물들을 신음하게 하고 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이기심 탓이다. 동물 복지 내팽개친 슬픈 동물원. 국내에서도 열악한 광주우치동물원, 국내의 동물원을 통해 우치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광주우치동물원에 사는 잔점박이 물범이 자신의 서식환경에 맞지 않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울부짖고 있다.



광주우치동물원에 사는 늑대는 하염없이 철창 바로 앞 2~3m 정도 거리를 왔다갔다했다. 흔히 '정형행동'(stereotyped behaviour)이나 상동증이라 불리는 그것, 우리 안에서 아무 목적없이 지속·반복되는 단순행동이었다. 사자·호랑이·치타 등 맹수들은 바닥이 딱딱한 구조로 돼 있는 우리 안 이곳저곳을 불안한 듯 뱅뱅 돌고 있었다. 은신처도 없어 맹수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독수리·참수리는 공간이 비좁아 날지 못했다. 면적 153㎡(46.2평)·높이 6m의 우리에 사는 참수리는 비좁은 공간에서 날기는 커녕 날개조차 자유롭게 펴지 못해 강박적으로 수도꼭지를 부리로 쥐고 있었다. 특히 코끼리는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0~50km로 행동반경이 넓고 사회성을 가진 동물인데, 우리는 고작 354㎡(107평)에 불과했다. 현재 이들 코끼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또 영양류인 침팬지 우리(면적 502㎡·151.8평)는 개체에 걸맞은 시설이나 자연과 흡사하게 먹이 주는 행위 등 동물행동부화 시설이 거의 없었다. 기린은 자신의 눈높이에 나뭇잎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바닥에 난 풀을 고개를 숙여 뜯어먹고 있다. 전주동물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철창 안에 갇힌 곰은 2~3m를 오가기를

반복하며 앉았다 섰다를 반복했다. 일본원숭이 우리는 바닥이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였으며,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는 좁은 철창 안에서 참새가 자유롭게 우리를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지능이 높은 유인원이나 곰, 늑대 등은 놀이가 필요한데도, 우리 안에는 놀잇감으로 삼을 만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다.

### 광주우치공원 동물들의 하소연

은신처 없어요 사자·호랑이·치타 등 맹수 불안한 듯 우리 안 뱅뱅 돌고

날 수 없어요 참수리, 수도꼭지 쪼아대고

걸을 수 없어요 코끼리는 머리만 흔들흔들

낮선 공간서 '정형행동' 반복 비인기 동물 우리는 더 열악

이들 동물원의 동물 우리는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관람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동물사, 이른바 비인기동물의 우리는 더 비좁고 열악했다. 특히 진흙목욕을 좋아하는 코뿔소를 위해 진흙탕을 만들어주고 바위에 올라가서 사는 바비리양을 위해 높은 인공바위산을 만들어 주는, 행동부화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동물원은 흔히 관람객들이 우거진 숲과 동물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하지만 동물의 입장

에서 본 동물원은 거대한 감옥이자 정신병동이었다. 비좁은 우리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멧돼지 동물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야생에서의 행동반경에 비해 턱없이 좁은 우리 ▲관람객에게 수시로 노출되며 받는 스트레스 ▲놀잇감도 없이 멧돼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환경이 동물들을 고통스럽고 미치게 만든다고 봤다.

사파리 형태로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시설을 만든 뒤 일일 관람객 수마저 제한하는 대만의 타이베이 동물원·녹세계생태농장(Green World Ecological Farm)·육복촌(Leofoo Village Theme Park)에선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이 없다는 게 이곳 사육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타이베이 동물원엔 야생동물검역센터와 동물병원이 갖추어져 있는데, 해당 동물원에 동물이 들어오면 동물의 종(種)에 따라 30~90일간 보호·관리하면서 질병 유무와 특성 등을 확인한 뒤 우리에 방사하고 있다. 이 기간에 동물에게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원인을 찾아낸 뒤 곧바로 치료에 들어간다. 철저한 사육환경 조성과 관리를 통해 동물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주기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이 없다는 것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 관계자는 "이들 동물원의 경우 동물의 존엄성·복지보다 사육사들이 관리하기 편한 구조로 지어졌다"며 "전시관을 동물의 생태습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해야 한다. 리모델링 땀 동물의 건강을 고려, 바닥에 흙과 풀을 충분히 깔아주고 면적을 충분히 넓혀 무료함을 피하고 행동부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2년 개원한 우치동물원엔 20동(85칸)의 동물 우리에 포유류 66종 272마리, 조류 47종 316마리, 파충류 25종 65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4마리가 질병·부상 등으로 폐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타이베이 동물원은? 동물검역센터·병원 갖추고 장기간 관찰 뒤 맞춤형 방사 관람객 제한...스트레스 없죠



대만 육복촌안 사파리. 관람객들이 사파리에 사는 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있다.



대만 녹세계생태농장 안에서 낙타와 동물인 알파카 떼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